

AHP 기법을 활용한 정원문화지수 개발 연구[†]

김영재* · 권진욱**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A Study of Developing Garden Culture Index Utilizing AHP Analysis

Kim, Young-Jae* · Kwon, Jin Woo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overall garden culture has been spreading based on the hosting of garden fairs and the promotion of the garden industry. Measuring the asset value of garden culture and preparing criteria for evaluating cultural competitiveness to pursue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hould be treated very importantly.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garden culture indicators and aim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that form garden culture, verify the priority of garden culture indicators, and finally develop the garden culture index. As an analysis method, AHP and FGI analyses were conducted, and garden culture indexes that can be applied to different types of gardens (national gardens, local gardens, private gardens, and village community gardens) were developed. As a result of verifying 42 garden culture components obtained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Delphi surveys of the previous study, five characteristic items and 27 final components related to garden culture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Among the 27 garden cultural indicators, the top components were identified as <sufficiency of space for relaxation>, <accessibility of garden (public transportation, walking)>, <place utilization for leisure activities>, and <diversity of space for daily garden activiti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garden space as a daily space help citizens form awareness and promotion of garden culture.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will enable citizens to participate in garden activities on a daily life and lay a sociological foundation for garden creation, and it has derived that garden culture as a daily activ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citizens' healthy lives.

Key Words: Delphi, Daily Activity, Relative Importance, FGI

국문초록

최근 전국적인 정원박람회 개최와 정원산업에 대한 진흥을 기반으로 총체적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정원과 관련한 문화의 자산가치를 가늠하고, 정원문화의 경쟁력을 창출하며, 개인의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경쟁력의

[†] 본 연구는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한국정원 재정립 연구, KNA 4-2-2, 19-9”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Kwon, Jin Wook,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Phone: +82-53-810-2976, E-mail: kwnji@yu.ac.kr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원문화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여 볼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정원문화지표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로써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구성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과 정원문화 지표의 우선순위 검증 및 최종적인 정원문화지수 개발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으로 AHP 기법 및 FGI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정원(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공동체 정원)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정원문화지수 개발을 하였다. 이전 연구의 1차,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얻은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결과,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특성항목 5가지와 정원문화 최종 구성요소 27개를 본 연구에서 도출하였다. 총 27개의 정원문화지표의 우선순위 중 상위에 포진한 구성요소는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정원의 접근성(대중교통, 도로),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 일상적 정원활동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공간으로서의 정원공간 활용 및 정원의 이용이 시민들에게 정원문화 인식 및 고취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정원문화 참여 및 정원조성을 위한 사회학적 기반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일상적 활동으로서의 정원문화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델파이, 일상적 활동, 상대적 중요도, FGI

1. 서론

21세기 한국의 정원 지형도는 전국적인 정원박람회와 정원 산업에 대한 진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정원과 관련한 문화의 자산가치를 가늠하고, 정원문화의 경쟁력을 창출하며, 개인의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경쟁력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원문화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여 볼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원의 기능과 역할은 개인 및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그 가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복합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원은 시각적 미를 중시한 예술적 가치 발현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하고 더불어 인간 생활과 관계한 실용의 목적으로 작업공간 및 생산환경으로 사용된다(신상섭과 이명우, 1998). 또한, 주택과 마당으로 분화된 공간구성을 유기적으로 접촉하는 곳으로, 자연미와 인공미가 결합하는 주거공간의 역할을 수행함(박정선 등, 2005)과 동시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의 장(고정희 등, 2010)이기도 하다. 이렇듯 정원은 체험의 대상물로서 이루어지는 가꾸는 행위와 감상하는 행위(이경찬과 민웅기, 2019)를 통한 심리적인 즐거움과 쾌적함을 얻는 휴식처이자 생활공간이라는 기존의 의미를 넘어서 공공성(publicity)을 기반으로 한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기능(박미옥 등, 2017)을 수행하는 장소의 의미가 지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화공간이라 함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를 위한 공간과 '활동'적인 측면에서 교육, 여가, 오락, 휴식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오동훈, 2010)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원문화'는 "정원을 매체

로 하여 그 안에 담기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 내용물'과 과정에 의하여 표출되는 '문화적 현상'까지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진욱 등, 2021). 이러한 정원문화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다기능(문화적, 생태적, 사회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영역의 활동을 파악해야 하며(박미옥 등, 2017), 정원문화 속성들이 관계하는 '전체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김학수, 2019). 특히 정원은 인간 생활 활동의 장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정신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삶의 문화로서 진정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박은영, 2011).

문화지수의 용어는 2000년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국민문화지수체계 개발'이라는 보고서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에 대한 의미는 문화를 둘러싼 각종 여건과 현실을 기준점과 대비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한 표준화된 종합수치라고 볼 수 있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문화지수는 어떤 한 분야의 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이며,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여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종합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일 문화와 관련하여 산출된 양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배태영, 2010). 이렇듯 문화지수는 문화지표에 대한 개발을 토대로 문화적인 가치 및 수준을 측정 가능하게 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교통문화지수, 지역문화 종합지수 등이 있다.

따라서 '정원문화지수(garden culture index)' 개발은 정원이 지니고 있는 정원문화에 대한 지표를 측정 가능한 구성요소로 분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원문

화지수는 정원에 대한 문화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종합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정원의 특성에 따른 보편적 문화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원문화지표 선행연구(권진욱 등, 2021)의 후속 연구로써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구성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이하 가중치) 파악과 정원문화 지표의 우선순위 검증 및 최종적인 정원문화지수 개발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권진욱 등(2021)이 1차,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얻은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선별된 정원전문가 그룹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최종 구성요소를 본 연구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원문화 구성요소는 이전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완한 것으로써 측정 평가점수표에 의해 환산되어 개별 정원에 대한 정원문화지수를 산정할 수 있게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내용별 접근방법

1) AHP를 활용한 정원문화 구성요소 우선순위 도출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고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들로 분해하여 세부요인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관을 포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여러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조근태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접근은 이전 선행연구(권진욱 등, 2021)에서 1차,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총 42의 정원문화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원문화 구성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구성요소 별 우선순위는 AHP를 활용하여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항목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복합가중치를 계산하고 정원문화 구성요소 전체에 대한 종합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AHP의 계층은 그림 1을 토대로 설정되었다. 최종목표(계층 1)에는 '정원문화', 평가영역(계층 2)은 정원문화의 8가지 특성 항목(공간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 자연소재에 대한 특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프로그램에 따른 특성,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특성, 사회적 공헌 및 홍보에 대한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세부평가요소(계층 3)는 델파이조사에서 얻은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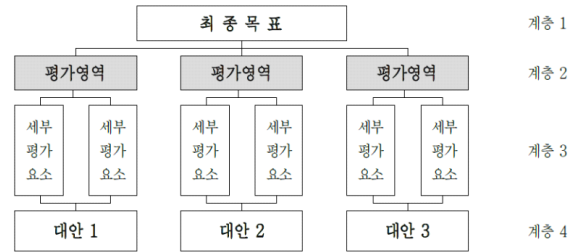


그림 1. AHP의 계층 구성

자료: 조근태 등, 2003.

2) 최종 지표 및 정원문화지수의 측정

1, 2차 델파이조사 및 AHP 조사를 통해 도출된 42개의 정원문화요소는 '정원문화지수의 평가 대상 정원 4개 유형(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공동체정원)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었고, 추가적인 조사로써 전문가 그룹 인터뷰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4개의 정원은 유형별로 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예, 국가정원은 총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및 체험시설 필요, 지방정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및 편의시설 필요, 민간정원은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 등)이 달라 동일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정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4개 정원 유형 모두에 적용 가능한 정원문화 요소만을 선별하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FGI 조사결과를 통해 최종 도출된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해 AHP 분석 결과로 나타난 요소별 복합가중치 값을 재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원문화지수는 지표별 복합가중치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또한, FGI 조사 이후 정원문화지표의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원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및 논의를 거쳐 정원문화에 대한 최종 특성항목의 명칭 및 개수를 재조정하였다. 선행연구(권진욱 등, 2021)를 기반으로 AHP를 활용한 본 연구단계의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AHP 연구단계 및 전문가선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AHP 기법은 정원문화에 대한 구성요소들을 유사한 속성끼리 분류, 구조화하고, 델파이기법을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들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량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구성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복합가중치를 도출하고, 종합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AHP의 연구과정 및 그에 따른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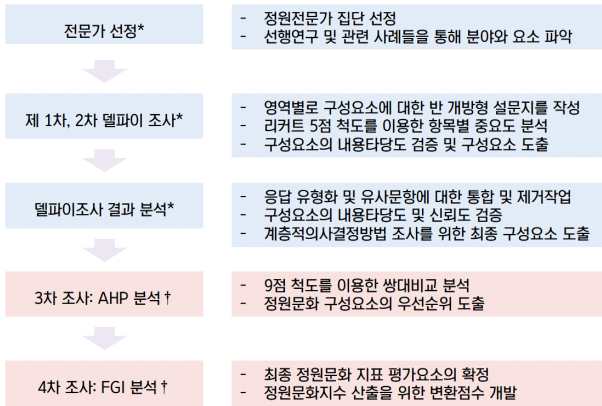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흐름도

자료: 권진욱 등, 2021: 335-345(*: 선행연구, †: 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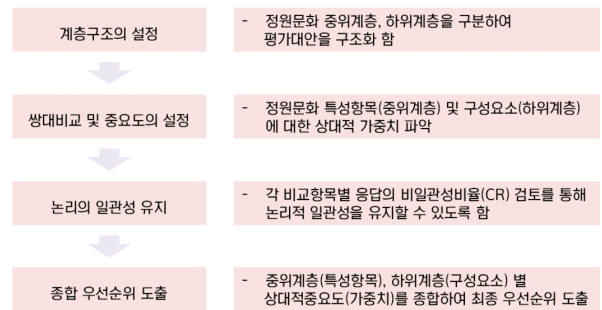


그림 3. AHP기법을 활용한 연구단계의 흐름

AHP를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규모는 정원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 델파이설문 응답을 충실히 수행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다. AHP 조사에 참여한 정원전문가 집단은 교수, 공공기관 종사자, 작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1차, 2차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패널이었다.

최초 1차 델파이조사에 참여 패널인 48명 중 40명이 2차 델파이조사에 참여하였고, 1차 델파이 및 2차 델파이에 모두 참여한 패널 40명을 AHP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28명의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받았다. 정원전문가 패널의 사회적 특성인 학력수준, 관련분야 종사 년 수, 분류별 패널 수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2) AHP 자료수집

AHP의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1차, 2차 델파이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40명의 정원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로 수집되었다.

AHP 조사는 디지전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웹(Web) 기반 AHP 소프트웨어인 I MAKE IT(아이메이크잇)을 활용하였다

표 1. 정원전문가 패널의 사회적 특성

직업 및 분류		1차 델파이 참여 전문패널수	2차 델파이 참여 전문패널수	AHP조사 참여 전문패널수
학력 수준	대학원 이상	33	31	22
	학사	11	9	6
	계	44	40	28
종사 분야	조경	35	31	20
	건축	4	4	4
	도시계획	3	3	2
	기타	2	2	2
	합계	44	40	28
관련 분야 종사 년 수	5년 미만	4	4	1
	5~10년 미만	8	7	5
	10~15년 미만	14	12	10
	15~20년 이상	18	17	12
	계	44	40	28

(<http://expertchoice.co.kr/makeit.html>). 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 '정원문화'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8개 특성항목을 '정원문화'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입력하였으며, 각 특성별 구성요소 42개를 하위기준으로 설정하였다. 42개 구성요소에 대한 쌍대비교는 비교대상을 두 개씩 뽑아서 진행하였으며, 9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을 '비슷함', 3점을 '약간 중요함', 5점을 '중요함', 7점을 '매우 중요함', 9점을 '절대적 중요함'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Saaty, 1977). 선행연구(권진욱 등, 2021)에서 도출한 정원문화와 관련한 8개 특성 및 42개 구성요소는 표 2와 같으며, 구성요소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번호체계를 사용하였다. 번호체계는 정원문화의 "구분", "특성", "요소" 별 번호를 추가하는 식으로 구성하였다.

AHP 조사의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은 2021년 8월 25일~9월 3일까지 약 10일 동안 진행하였다. 총 28명의 회수된 설문지 응답 모두, 모든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쌍대비교 분석결과 비일관성 비율이 0.10 미만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결과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쌍대비교의 응답자료는 입력 행렬로 전환되어 행렬의 동일 성분 값을 기하평균을 구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였다. 기하평균은 산술평균 및 조화평균 등의 다른 평균값보다 변량 중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덜 받고 비율적 방법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강병서, 2001).

표 2. 선행연구의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정원문화 구성요소

구분	특성	구성요소
1. 정원환경	1-1 공간 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	1-1-1 건물과 정원의 이용 관계 여부
		1-1-2 건물/건조물과 정원의 조화성
		1-1-3 정원 규모에 따른 정원활동(산책, 교육, 행사 등)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
		1-1-4 동선 계획의 적절성
		1-1-5 지형, 지물 이용의 적절성
		1-1-6 정원 내부 경관의 다양성
		1-1-7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
	1-2 자연 소재에 대한 특성	1-2-1 정원 규모에 따른 식재수종의 다양성
		1-2-2 식생에 대한 지역성(기후 특성, 자생수종)
		1-2-3 식생에 대한 계절성(꽃, 색상 등)
		1-2-4 생물 다양성(동물·식물)을 위한 환경 제공
		1-2-5 자연소재(수목, 물, 흙, 돌 등) 활용 다양성
	1-3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1-3-1 정원의 접근성 (대중교통, 도로 등)
		1-3-2 정원의 개방성 및 공공성(공유지, 사유지)
		1-3-3 주변 녹지 혹은 수공간과의 연계성
2. 정원체험	2-1 프로그램에 따른 특성	2-1-1 정원 규모에 따른 주제정원의 다양성(전시정원, 치유정원, 놀이정원, 가드닝 등)
		2-1-2 연령대별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성
		2-1-3 프로그램의 계절별 활용성
		2-1-4 문화행사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공연,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2-1-5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
		2-1-6 부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2-2 공간 활용에 대한 특성	2-2-1 일상적 가드닝 활동(도시농업) 실천 가능성
		2-2-2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
		2-2-3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2-2-4 식물소재 등 자연 학습장소로서의 활용성
	2-3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	2-3-1 정원 재방문에 대한 의사(만족도)
		2-3-2 정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행복지수)
		2-3-3 신체적 건강 편익의 증진
		2-3-4 심리적 혹은 정신적 안정
		2-3-5 이웃/친구/가족 간의 교류 증대
3. 정원운용	3-1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특성	3-1-1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3-1-2 정원 관리 매뉴얼의 활용
		3-1-3 전담 조직의 편성
		3-1-4 관리운영 인원의 적절성
		3-1-5 지속적인 정원 모니터링
		3-1-6 정원 및 수목정보 안내판, 해설사운용
		3-1-7 자발적 참여 유도
	3-2 사회적 공헌 및 홍보에 대한 특성	3-2-1 지역 경제를 위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3-2-2 정원문화확산 및 보급화
		3-2-3 지역적 랜드마크의 역할
		3-2-4 정원 관련 정보 전달에 대한 적극성(홍보, 출판물, SNS 등)
		3-2-5 타 분야와의 연계(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자료: 권진욱 등, 2001: 335-345. 필자 재작성.

3) FGI 전문가 선정 및 자료수집

전문가 선정은 1, 2차 델파이 조사 및 AHP 조사에 모두 참여한 전문가 패널 중 전문지식 및 설문응답의 성실성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1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FGI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10명의 FGI 조사참여 전문가들에게 AHP 설문을 통해 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의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각 구성요소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공동체) 정원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면 ○표시에 체크를, 공통적 적용이 어려운 경우 ×표시에 체크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에 체크를, △와 ×표시를 한 항목에 대해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FGI 조사참여 전문가 10명 중 3명 이상(33%)이 '×'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구성요소는 4개 정원 유형인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공동체) 정원'에 공통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였고, 해당 구성요소를 최종 정원문화 지표에서 제거하였다.

FGI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10명의 FGI 조사 참여자 중 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회신을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평가요인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평가요인별 우선순위의 분석결과는 정원문화의 특성항목(중위계층)과 구성요소(하위계층)를 구분하여 각 요인별 쌍대비교를 통해 얻은 기하평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쌍대비교는 수학적 조합에 의해 비교 회수가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8개의 정원문화 특성항목은 비교 조합에 의해 총 8C2, 즉 28번 비교되었다. 각 특성항목을 구성하는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쌍대비교를 하여 얻은 기하평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 특성항목(중위계층) 간 우선순위

정원문화 특성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상대적 중요도(이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공간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이 0.190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공간활용에 대한 특성”이 0.159, “자연소재에 대한 특성”이 0.129,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특성”이 0.124,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이 0.123, “프로그램에 따른 특성”이 0.117,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이 0.087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3, 그림 4 참조). 이는 정원문화의 행태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공간시설 및 활용성이 차지하

고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자연소재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에 따른 특성의 중요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이벤트적인 프로그램 요소보다는 일상에서의 정원활용성이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정원문화 구성요소(하위계층) 간 우선순위

(1) <공간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에 대한 구성요소

해당 특성에 대한 7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정원 규모에 따른 정원활동(산책, 교육, 행사)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이 0.176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동선계획의 적절성”이 0.165, “정원 내부 경관의 다양성”이 0.162, “건물/건조물과 정원의 조화성”이 0.138, “지형, 지물 이용의 적절성”은 0.134, “건물과 정원의 이용관계 여부”는 0.11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이 0.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원문화 특성항목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특성 항목명	가중치	우선순위
1-1 공간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	0.19006	1
1-2 자연소재에 대한 특성	0.12878	3
1-3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0.12268	5
2-1 프로그램에 따른 특성	0.11703	6
2-2 공간활용에 대한 특성	0.15948	2
2-3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	0.08722	7
3-1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특성	0.12359	4
3-2 사회적 공헌 및 홍보에 대한 특성	0.07116	8

* 비일관성 비율: 0.0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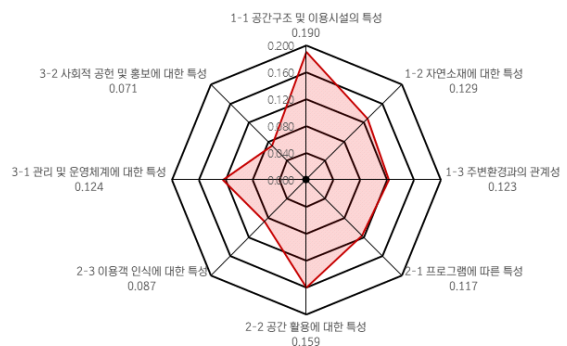


그림 4. 정원문화 특성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여러 종류의 활동을 수반하는 공간의 다양성과 이동의 편리함을 위한 동선계획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연소재에 대한 특성>에 대한 구성요소

자연소재 특성에 대한 5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식생에 대한 지역성(기후적 특성, 자생수종)”이 0.221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식생에 대한 계절성”이 0.220, “정원 규모에 따른 식재 수종의 다양성”이 0.212, “생물 다양성(동, 식물)을 위한 환경 제공”이 0.178, “자연소재(수목, 물, 흙, 돌) 활용의 다양성”은 0.169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자생수종 혹은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식생과 계절을 고려한 식생 등을 기반으로 한 정원의 구성이 정원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정원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식물을 위한 서식처 제공으로서의 정원 및 세부적인 자연소재 활용의 다양성은 정원문화의 형성 기어에 대한 역할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에 대한 구성요소

해당 특성에 대한 3개의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정원의 개방성 및 공공성(공유지, 사유지)”이 0.381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정원의 접근성(대중교통, 도보)”이 0.361, “주변 녹지 혹은 수공간과의 연계성”이 0.259 순으로 파악되었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공공공간으로서 정원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중교통 및 도보 등의 이동수단으로 정원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원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 녹지 혹은 수공간과의 연계성은 정원문화 형성에 다소 낮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4. <공간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1-1-1 건물과 정원의 이용 관계 여부	0.11172	6
1-1-2 건물/건조물과 정원의 조화성	0.13840	4
1-1-3 정원 규모에 따른 정원활동(산책·교육·행사)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	0.17642	1
1-1-4 동선 계획의 적절성	0.16529	2
1-1-5 지형, 지물 이용의 적절성	0.13455	5
1-1-6 정원 내부 경관의 다양성	0.16224	3
1-1-7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0.11138	7

* 비일관성 비율: 0.00110.

표 5. <자연소재에 대한 특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1-2-1 정원 규모에 따른 식재수종의 다양성	0.21220	3
1-2-2 식생에 대한 지역성(기후적 특성, 자생수종)	0.22050	1
1-2-3 식생에 대한 계절성(꽃, 색상 등)	0.22011	2
1-2-4 생물 다양성(동, 식물)을 위한 환경 제공	0.17779	4
1-2-5 자연소재(수목, 물, 흙, 돌) 활용의 다양성	0.16941	5

* 비일관성 비율: 0.00118.

표 6.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1-3-1 정원의 접근성(대중교통, 도보)	0.36077	2
1-3-2 정원의 개방성 및 공공성	0.38074	1
1-3-3 주변 녹지 혹은 수공간과의 연계성	0.25849	3

* 비일관성 비율: 0.00050.

(4) <프로그램에 따른 특성>에 대한 구성요소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6개의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정원규모에 따른 주제정원의 다양성”이 0.239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0.187, “문화행사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0.163,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0.143, “프로그램의 계절별 활용성”이 0.142, “부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0.126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주제정원 조성을 통한 이용행태의 다양성 유도 및 어른, 아이, 청소년, 연인,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회성의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의 계절별 활용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일상 환경으로서의 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부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시설의 본래 목적과 다른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공간활용에 대한 특성>에 대한 구성요소

공간활용 특성에 대한 4개의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이 0.313으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이 0.263, “일

표 7. <프로그램에 따른 특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2-1-1 정원규모에 따른 주제정원 (전시, 치유, 놀이, 가드닝)의 다양성	0.23961	1
2-1-2 연령대별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성	0.18732	2
2-1-3 프로그램의 계절별 활용성	0.14162	5
2-1-4 문화행사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공연, 전시, 시민참여)	0.16302	3
2-1-5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	0.14253	4
2-1-6 부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0.12590	6

* 비일관성 비율: 0.00284.

상적 가드닝 활동의 실천 가능성"이 0.230, "식물소재 등 자연 학습장소로서의 활용성"이 0.194 순으로 파악되었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휴식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일상의 공간으로서 정원이 활용될 경우, 정원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연 학습장소로의 활용이 다소 낮은 것은 특별한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6)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에 대한 구성요소

해당 특성에 대한 5개의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정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행복지수)"이 0.309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혹은 정신적 안정"이 0.246, "정원 재방문에 대한 의사(만족도)"는 0.158, "신체적 건강 편익의 증진"이 0.143, "이웃/친구/가족 간의 교류 증대" 0.142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정신적 안정 등을 위한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서 정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활동 공간으로의 활용 및 사회적 교류에 대한 역할은 그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공간활용에 대한 특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2-2-1 일상적 가드닝 활동(도시농업)의 실천 가능성	0.22992	3
2-2-2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	0.26253	2
2-2-3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0.31319	1
2-2-4 식물소재 등 자연 학습장소로서의 활용성	0.19436	4

* 비일관성 비율: 0.00193.

표 9.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2-3-1 정원 재방문 의사(만족도)	0.15847	3
2-3-2 정원을 통한 삶의 질(행복지수)	0.30950	1
2-3-3 신체적 건강 편익의 증진	0.14362	4
2-3-4 심리적 혹은 정신적 안정	0.24580	2
2-3-5 이웃·친구·가족 간의 교류 증대	0.14260	5

* 비일관성 비율: 0.00417.

(7)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특성>에 대한 구성요소

해당 특성에 대한 7개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정원 모니터링"이 0.183으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전담 조직의 편성"이 0.177, "관리운영 인원의 적절성"이 0.145,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이 0.144, "정원 관리 매뉴얼의 활용"이 0.135, "정원 및 수목정보 안내판 및 해설사 운용"이 0.112, "자발적 참여 유도" 0.105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정원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사항에 대한 파악과 이와 관련한 전담 조직을 편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체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정원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의 관리운영자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목정보 안내판, 해설사 운용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수목원과의 성격과 달리 정원은 휴식 및 일상공간으로서 속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관리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여부는 정원문화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8) <사회적 공헌 및 홍보에 대한 특성>에 대한 구성요소

해당 특성에 대한 5개의 구성요소의 가중치에 따른 우선순위는 "정원문화 확산 및 보급화"이 0.324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랜드마크의 역할"이 0.204, "타 분야와의 연

표 10.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특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3-1-1 관리자의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0.14389	4
3-1-2 정원 관리 매뉴얼의 활용	0.13486	5
3-1-3 전담 조직의 편성	0.17665	2
3-1-4 관리운영 인원의 적절성	0.14473	3
3-1-5 지속적인 정원 모니터링	0.18257	1
3-1-6 정원·수목정보 안내판, 해설사	0.11217	6
3-1-7 자발적 참여 유도	0.10513	7

* 비일관성 비율: 0.00238.

계성(도시재생, 문화예술산업)이 0.176, “지역 경계를 위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이 0.151, “정원 관련 정보 전달에 대한 적극성”이 0.145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해당 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며, 지역적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정원문화 인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산업과 연계한 일회성 성격이 짙은 홍보, 출판물,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또는 정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보다는 정원 내부의 속성 개선이 오히려 정원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복합가중치 및 종합우선순위

복합가중치 계산은 정원문화 특성항목(중위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구성요소(하위계층)에 대한 가중치와 곱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산출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정원문화 지수개발을 위한 복합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및 총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종합 우선순위는 표 12와 같다.

2. FGI 조사를 통한 정원문화지수의 최종 지표

1) FGI 분석결과

FGI 조사참여 전문가 9명 중 3명 이상(33%)이 ‘x’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구성요소는 4개 정원 유형인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공동체) 정원’ 공통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였고, 해당 구성요소를 최종 정원문화 지표에서 제거하였다.

“정원의 개방성 및 공공성(공유지, 사유지)” 요소는 ‘민간정원의 경우, 개방 의사에 따른 가치 부여 어려움’, ‘민간정원에 공유지는 부적합’, ‘민간정원의 경우는 소유자 판단’, ‘민간정원은 상황에 따라 개방성·공공성에서 제약이 있음’, ‘민간정원은

표 11. <사회적 공헌 및 홍보 특성> 요소의 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가중치	우선순위
3-2-1 지역 경계를 위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0.15073	4
3-2-2 정원문화 확산 및 보급화	0.32416	1
3-2-3 지역적 랜드마크의 역할	0.20366	2
3-2-4 정원 관련 정보 전달에 대한 적극성(홍보, 출판물, SNS)	0.14537	5
3-2-5 타 분야와의 연계성(도시재생, 문화예술산업)	0.17609	3

* 비일관성 비율: 0.00070.

표 12.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복합가중치 및 종합우선순위

정원문화 구성요소	복합가중치	종합순위	
2-2-3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0.0499	1
1-3-2	정원의 개방성 및 공공성	0.0467	2
1-3-1	정원의 접근성(대중교통, 도보)	0.0443	3
2-2-2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	0.0419	4
2-2-1	일상적 가드닝 활동	0.0367	5
1-1-3	정원 규모에 따른 활동의 다양성	0.0335	6
1-3-3	주변 녹지 혹은 수공간의 연계성	0.0317	7
1-1-4	동선 계획의 적절성	0.0314	8
2-2-4	자연 학습 장소로서의 활용성	0.0310	9
1-1-6	정원 내부 경관의 다양성	0.0308	10
1-2-2	식생에 대한 지역성	0.0284	11
1-2-3	식생에 대한 계절성	0.0283	12
2-1-1	주제정원의 다양성	0.0280	13
1-2-1	식재 수종의 다양성	0.0273	14
2-3-2	정원을 통한 삶의 질	0.0270	15
1-1-2	건물/건조물과 정원의 조화성	0.0263	16
1-1-5	지형, 지물 이용의 적절성	0.0256	17
3-2-2	정원문화 확산 및 보급화	0.0231	18
1-2-4	생물 다양성을 위한 환경 제공	0.0229	19
3-1-5	지속적인 정원 모니터링	0.0226	20
2-1-2	연령대별 이용 프로그램	0.0219	21
3-1-3	전담 조직의 편성	0.0218	22
1-2-5	자연소재 활용의 다양성	0.0218	23
2-3-4	심리적 혹은 정신적 안정	0.0214	24
1-1-1	건물과 정원의 이용 관계 여부	0.0212	25
1-1-7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0.0212	26
2-1-4	문화행사 프로그램 구성	0.0191	27
3-1-4	관리운영 인원의 적절성	0.0179	28
3-1-1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0.0178	29
2-1-5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	0.0167	30
3-1-2	정원 관리 매뉴얼의 활용	0.0167	31
2-1-3	프로그램의 계절별 활용성	0.0166	32
2-1-6	부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0.0147	33
3-2-3	지역적 랜드마크의 역할	0.0145	34
3-1-6	정원 및 수목정보 안내판·해설사	0.0139	35
2-3-1	정원 재방문 의사(만족도)	0.0138	36
3-1-7	자발적 참여 유도	0.0130	37
3-2-5	타 분야와의 연계성	0.0125	38
2-3-3	신체적 건강 편익의 증진	0.0125	39
2-3-5	이웃/친구/가족 간의 교류 증대	0.0124	40
3-2-1	지역 경계를 위한 수익성	0.0107	41
3-2-4	정원 정보 전달에 대한 적극성	0.0103	42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개방 여부 결정'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 선택의견을 주었다.

“일상적 가드닝 활동의 실천 가능성” 요소는 ‘민간정원의 경우 일상적 가드닝 활동이 어려운 곳도 있음’, ‘국가정원이나 일부 민간정원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상적 가드닝과 도시농업 인지 혼란스러움’, ‘민간정원에서 일상적 가드닝 활동의 실천 주체가 누구인지 명기’, ‘민간정원의 경우는 적용 어려움’, ‘규모가 큰 국가정원에 적용하기 부적절’, ‘민간정원과 마을정원은 개별 정원의 특성에 따라 일상적 가드닝 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 등의 이유로 5명의 전문가가 'x' 선택의견을 주었다.

“연령대별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성” 요소는 ‘민간정원은 경우 프로그램이 없거나 모든 연령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 ‘민간, 공동체 정원의 경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어 연령대별 다양성을 갖추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민간정원에는 법규나 지침 적용 평가의 가늠 힘들’, ‘개인 정원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 마을정원의 경우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함’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 선택의견을 주었다.

“전담 조직의 편성” 요소는 ‘마을정원과 민간정원은 전담조직이 없으며 특히 민간정원은 대부분 가족경영체제로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직이라 보기 어려움’, ‘민간이나 공동체 정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공공 및 수익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개인에 의해 가꾸지는 정원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규모가 작은 마을 정원에 전담 조직 편성 어려움’, ‘민간정원, 마을정원의 경우 조직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함’, ‘소유주의 의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단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4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문화행사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공연,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요소는 ‘민간정원은 프로그램보다는 관람 위주의 운영’, ‘공공 및 상업 정원에서 주로 가능’, ‘단독(소규모)으로 가꾸지는 개인 정원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 마을정원의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문화 프로그램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음’ 등의 이유로 4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관리운영 인원의 적절성” 요소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 관리 인력의 지속적 고용 어려움’, ‘공공 및 수익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단독(소규모)으로 가꾸지는 개인 정원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규모가 작은 마을 정원에 적절한 수의 관리운영 인원 두기 어려움’, ‘소유주의 의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단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4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요소는 ‘민간정원은 교육이행이 불가, 대부분 일용직’,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단독(소규모)으로 가꾸지는 개인 정원에 적용 어려움’, ‘단발성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성은 예산에 좌우 될 것임’ 등의 이유로 4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 요소는 ‘모든 정원이 교육과 학습을 위해 조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휴식과 산책 등을 위한 정원(민간)이 다수’,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 마을정원의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교육/학습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소유주의 의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단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정원 관리 메뉴얼의 활용” 요소는 ‘국가·지방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은 관리메뉴얼이 부재’, ‘공공 및 수익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소유주의 의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단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프로그램의 계절별 활용성” 요소는 ‘마을정원과 민간정원은 정기프로그램이 대부분 없음’,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부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요소는 ‘마을정원과 민간정원의 경우 시설을 만족하기 어려움’, ‘소규모 민간, 공동체 정원의 경우 부대시설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 마을정원의 경우 조성 목적이나 위치, 규모에 따라 부대시설의 차이가 큼’ 등의 이유로 4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정원 및 수목정보 안내판, 해설사 운영” 요소는 ‘민간정원 대부분에 해설사가 없으며 정원주가 대부분 관리 해설을 겸하고 있음’,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단독(소규모)으로 가꾸지는 개인 정원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의 해설사 운용도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타 분야와의 연계성(도시재생, 문화예술산업)” 요소는 ‘민간정원의 경우 연계가 어려움’,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민간정원 적용 어려움’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지역 경제를 위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요소는 ‘민간정원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는 어려움’, ‘모든 민간, 공동체 정원에 지역 경제 관련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임,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단독(소규모)로 가꾸지는 개인 정원에 적용 어려움’, ‘민간정원과 마을(공동체) 정원 적용 어려움’ 등의 이유로 4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정원 관련 정보 전달에 대한 적극성(홍보, 출판물, SNS)” 요소는 ‘고령자가 운영하는 정원은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음’, ‘공공 및 수익을 위한 경영 정원에서만 가능’, ‘민간정원 적용 어려움’, ‘소유주의 의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단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3명의 전문가가 ‘x’를 선택하였다.

FGI 종합분석 결과, 총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 중, 15개의 구성요소가 4개 정원 유형에 공통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제거하고 총 27개의 요소를 최종 도출하였다.

2) 최종지표 및 복합가중치의 재조정

FGI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최종 27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정원문화지수 산출을 위한 최종 평가지표(하위계층)로 확정하였고,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및 논의과정을 거쳐 기존 8개의 정원문화 특성항목(중위계층)을 5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 중 제거된 15개의 복합가중치의 합계를 남은 27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복합가중치의 비율에 맞게 할당하여 산정하였다. 총 27개의 각 정원문화 지표별 복합가중치의 점수화는 가중치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최종 우선순위는 표 13과 같다.

3) 정원문화지수 산정을 위한 평가점수표

앞서 도출된 복합가중치를 재조정된 결과값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별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변환점수를 도출하였고, 총 27개의 평가지표의 ‘매우 양호’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총 100점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정원문화지수 종합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점수표 결과는 표 14와 같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정원문화지표 개발을 진행한 선행연구(권진욱 등, 2021)의 후속 연구로써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구성요소 간의 중요도 파악과 정원문화 지표의 우선순위 검증 및 복합가중치 활용을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정원인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공동체 정원에 모두 적용 가능한 정원문화지수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전 연구의 1차,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얻은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선별된 정원전문가 그룹의 인터뷰조사(FGI)를 통해 정원문화를 형성하는 특성항목

표 13. 복합가중치의 재조정

정원문화 구성요소(평가지표)		복합가중치 점수화	우선 순위
2-1-5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7.075	1
2-1-2	정원의 접근성(대중교통, 도보)	6.269	2
2-1-4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	5.930	3
1-1-3	정원활동(산책, 교육, 행사)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	4.749	4
2-1-3	주변 녹지 혹은 수공간과의 연계성	4.492	5
1-1-4	동선 계획의 적절성	4.450	6
2-1-6	자연 학습장소로서의 활용성	4.390	7
1-1-6	정원 내부 경관의 다양성	4.368	8
1-2-2	식생에 대한 지역성	4.022	9
1-2-3	식생에 대한 계절성	4.015	10
2-1-1	주제정원의 다양성	3.972	11
1-2-1	식재 수준의 다양성	3.871	12
2-2-2	정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824	13
1-1-2	건물/건조물과 정원의 조화성	3.726	14
1-1-5	지형, 지물 이용의 적절성	3.622	15
3-1-3	정원문화 확산 및 보급화	3.267	16
1-2-4	생물 다양성을 위한 환경 제공	3.243	17
3-1-1	지속적인 정원 모니터링	3.196	18
1-2-5	자연소재 활용의 다양성	3.090	19
2-2-4	심리적 혹은 정신적 안정	3.037	20
1-1-1	건물과 정원의 이용 관계 여부	3.008	21
1-1-7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2.998	22
3-1-4	지역적 랜드마크의 역할	2.053	23
2-2-1	정원 재방문의사(만족도)	1.958	24
3-1-2	자발적 참여 유도	1.840	25
2-2-3	신체적 건강 편익의 증진	1.774	26
2-2-5	이웃/친구/가족 간의 교류 증대	1.762	27
총합계		100	-

5가지와 정원문화 최종 구성요소 27개를 본 연구에서 도출하였다. 27개의 요소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복합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5점 리커트척도에 따라 해당 평가점수가 다르게 산정되도록 하였다.

최종 총 27개의 정원문화지표의 우선순위 중 상위에 포진한 구성요소는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정원의 접근성(대중교통, 도보)”,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 “일상적 정

표 14. 정원문화지수 산정을 위한 평가점수표

특성항목(중위계층)	구성요소(평가지표)(하위계층)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매우 양호
공간구조 및 이용시설 (7개)	건물과 정원의 이용 관계 여부	0.6	1.2	1.8	2.4	3.0
	건물/건조물과 정원의 조화성	0.7	1.5	2.2	3.0	3.7
	정원활동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	0.9	1.9	2.8	3.8	4.7
	동선 계획의 적절성	0.9	1.8	2.7	3.6	4.4
	지형, 지물 이용의 적절성	0.7	1.4	2.2	2.9	3.6
	정원 내부 경관의 다양성	0.9	1.7	2.6	3.5	4.4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0.6	1.2	1.8	2.4	3.0
자연 소재 (5개)	식재 수종의 다양성	0.8	1.5	2.3	3.1	3.9
	식생에 대한 지역성	0.8	1.6	2.4	3.2	4.0
	식생에 대한 계절성	0.8	1.6	2.4	3.2	4.0
	생물 다양성을 위한 환경 제공	0.6	1.3	1.9	2.6	3.2
	자연소재 활용의 다양성	0.6	1.2	1.9	2.5	3.1
공간 활용 (6개)	주제정원의 다양성	0.8	1.6	2.4	3.2	4.0
	정원의 접근성	1.3	2.5	3.8	5.0	6.3
	녹지 혹은 수공간의 연계성	0.9	1.8	2.7	3.6	4.5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적 활용성	1.2	2.4	3.6	4.7	5.9
	휴식을 위한 공간의 적합성	1.4	2.8	4.2	5.7	7.1
	자연 학습장소로서의 활용성	0.9	1.8	2.6	3.5	4.4
이용객 인식 (5개)	정원 재방문 의사(만족도)	0.4	0.8	1.2	1.6	2.0
	정원을 통한 삶의 질	0.8	1.5	2.3	3.1	3.8
	신체적 건강 편익의 증진	0.4	0.7	1.1	1.4	1.8
	심리적 혹은 정신적 안정	0.6	1.2	1.8	2.4	3.0
	이웃/친구/가족 간의 교류 증대	0.4	0.7	1.1	1.4	1.8
관리 및 가치 (4개)	지속적인 정원 모니터링	0.6	1.3	1.9	2.6	3.2
	자발적 참여 유도	0.4	0.7	1.1	1.5	1.8
	정원문화 확산 및 보급화	0.7	1.3	2.0	2.6	3.3
	지역적 랜드마크의 역할	0.4	0.8	1.2	1.6	2.1

원활동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공간으로서의 정원공간활용 및 정원의 이용이 시민들에게 정원문화 인식 및 고취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주며, 이와 관련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AHP 분석 결과의 하위 10위의 구성요소 중 많은 요소가 이벤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타 분야와의 연계성 등이 포함해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원문화 형성에는 정원의 외적인 성격보다는 정원 내부 및 일상의 정원 활동 증진을 위한 속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 도출한 정원문화지표는 정원의 공간시설의 제안, 공간활용, 자연소재의 활용, 관리주안점,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원문화지수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원문화지표 항목만을 선별한 것이다. 따라서 정원규모 및 시설 특징 등에 상관없이 상대적인 정원문화지수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 정원문화 구성요소 도출시 진행하였던 FGI 분석 이후의 복합가중치 재산정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또한, AHP 분석과정에서 정원문화 특성항목별 구성요소 개수의 차이로 인해 가중치 값의 차이가 생겼으

나, 이는 관련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권진욱 등, 2021)의 1차,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를 활용한 결과이며, AHP 기법을 활용한 타 선행연구에서도 특성항목별 구성요소의 개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주희와 조세환, 2012; 이형숙, 2014; 유현정과 권진욱,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에서는 4개의 정원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출한 27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다각적으로 재검토하고, 몇몇 정원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정원문화지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정원문화 참여 및 정원조성을 위한 사회학적 기반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일상적 활동으로서의 정원문화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References

1. 강병서(2001) SPSS 통계분석에 대한 이해. 법문사.
2. 고정희, 김아연, 김연규, 남기준, 박승진, 배정환, 성종상, 이유주현, 이유직, 정옥주, 주신하, 최정민, 홍형순(2010)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나무도시.
3. 권진욱, 김영재, 신한나, 배준규(2021)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정원문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7(4): 335-345.
4. 김학수(2019)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공간의 유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 연구.
6. 박미옥, 최자호, 구분학(2017) 정원 기능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3(2): 96-102.
7. 박은영(2011) 전통주택 마당에 나타나는 정원양식의 현대적 분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28-38.
8. 박정선, 이원호, 김용기(2005) 복촌 한옥마을 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3): 37-49.
9. 배태영(2010) 상대적 문화지수 측정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4(3): 217-239.
10. 신상섭, 이명우(1998) 현대 주택정원의 전통계승기법 적용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6(3): 41-53.
11. 유현정, 권진욱(2022) AHP 기반의 치유정원 계획요소 도출 및 중요도 분석.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8(3): 146-156.
12. 오동훈(2010)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연구. 도시행정학보 23(1): 175-197.
13. 이경찬, 민용기(2019)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정원관광의 인문학적 고찰: 유니버설 디자인의 융합가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0(38): 129-154.
14. 이주희, 조세환(2012) 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 및 요소별 중요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1(6): 62-71.
15. 이형숙(2014) AHP 기법을 이용한 하천 친수공간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0(1): 27-36.
16. 조근태, 조용근, 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원출판사.
17. Saaty, T. L.(1977)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5(3): 234-281.
18. <http://expertchoice.co.kr/makeit.html>

Received : 17 April, 2023

Revised : 17 April, 2023 (1st)

28 June, 2023 (2nd)

30 June, 2023 (3rd)

Accepted : 30 June, 2023

3인익명 심사필